

구병모 소설의 환상 공간과 새로운 성장

—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를 중심으로

김순정* | 원광대

< 목 차 >

1. 서론
2. 청소년소설의 개념과 성장의 의미
3. 환상 공간의 도입과 성장
 - 1) 『위저드 베이커리』: 위로와 치유의 공간
 - 2) 『방주로 오세요』: 불평등과 위계의 공간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를 중심으로 청소년소설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성장’이라는 주제가 환상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밝히고, 구병모가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문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병모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표적인 청소년 소설가로 청소년소설을 대중화시키는데 견인자 구실을 해온 소설가다. 구병모의 텍스트는 신화와 동화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밀도 있게 조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대표적 청소년소설인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는 환상 공간을 도입한 성장 서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병모가 구현한 환상세계는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고, 현실보

* 원광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다 가혹한 불평등과 위계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 환상세계는 현실과 유리된 곳이 아니며, 완벽한 세계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상소설 속 캐릭터는 종종 비범하거나, 신비로운 힘을 가진다. 그러나 구병모는 평범한 보통의 청소년 캐릭터를 설정하였고, 환상공간에서 만나는 조력자 역시 완벽하지 않다. 또 구병모는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인 성장이 결과 중심이었다면, 구병모는 과정 중심으로 해석했다.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며,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주체성'을 성장의 중심에 두었다.

본 논문은 구병모 소설에 나타난 환상 공간의 도입과 주인공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청소년소설에서 보편적인 성장 서사의 도식이 '환상 공간'을 통해 어떤 새로운 성장 문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또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방주로 오세요』를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분석하여, 두 텍스트에서 구현한 환상 공간의 차별적인 지점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구병모, 청소년소설, 환상 공간, 성장 문법, 성장 서사, 치유, 위로, 불평등, 위계

1. 서론

청소년소설은 2008년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완득이』(김려령, 창비, 2008)를 기점으로 급부상하였다.¹⁾ 다음 해인 2009년에 『위저드 베이커리』(구병모, 창비, 2009)가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 문학상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문학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장코드의 확산이 있었다고 김화선은 주장한다.²⁾ 그러

- 1) 김선미, 「청소년소설의 성장서사 유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4쪽.
- 2)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3), 2008.12, 280. 『완득이』가 소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면서 1318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자리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장-코드의 확산 현상이 있었다. 황석영의 『개밥마리키 별』(문학동네, 2008), 최인호의 『머저리클럽』(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등의 성장소설은 『완득이』와 합

나 한편으로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성장의 의미’에 대한 논쟁적 시각이 존재한다. 청소년소설의 성장 서사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것은, 근대사회 교양소설의 성장과 차별되는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교훈이 필요하며, 청소년소설은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열린 결말, 두 개의 결말, 청소년 인물의 냉소를 유지하는 시도 등 다양한 변주가 그것이다.³⁾

구병모는 『위저드 베이커리』 후기에서 소설은 “그저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틀릴 확률이 어찌던 더 많은, 때로는 어이없는 주사위 놀음에 지배받기도 하는. 그래도 그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며 또한 그렇다 보니 “성장의 문법을 무의식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밝히고 있다.⁴⁾ 기존의 성장 서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계몽적이고 도식적인 성장 서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구병모식 해법은 환상 공간을 통해, 열린 결말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구병모의 소설과 기존 청소년소설의 차별적인 지점이다. 또한 구병모는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보편적으로 성장을 결과 중심으로 해석했다면, 구병모는 과정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어이없는 주사위 놀음에 지배받기도 한다.”라는 전제는 통과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려는 과정 자체를 ‘성장’이라고 말한다. 즉 실패에 대한 극복이나 인격적·윤리적 완성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구병모는 닫힌 결말에서 벗어나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는 한국 영어덜트 소설의 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병모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표적인 청소년 소설가⁵⁾라고 평

게 성장소설 붐을 이루었고, 칠티 문학을 여성 주체의 성장서사로 평가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한편, 평생학습사회에서 쉽 없는 자기계발에의 강박이 수많은 처세술과 자기계발 서적의 출간을 견인하였다. <중략> 성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자양분이 되었다.

- 3) 이주연,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2019, 2쪽.
- 4) 구병모, 「후기」,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251쪽.
- 5) 김학찬, 「청소년 소설 집체 양상 연구—청소년 소설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33쪽.

가받고 있는바, 청소년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룬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는 환상 공간을 제시하여 청소년 독자들이 작품에 접근하는 폭을 넓혔다. 김명순은 실제 청소년들이 판타지에 탐닉하는 이유를 척박한 교육환경이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며, 억압적인 현실을 떠나 잠깐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한 환상의 공간에서 달콤한 위무를 받고 싶기 때문이⁶⁾ 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는 창작기법 면에서 판타지를 도입하여 청소년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또한 구병모 소설은 치밀한 묘사와 전문적 지식이 글에 녹아있다는 평을 받는다.⁷⁾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공간에 대한 상징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동화나 신화적 공간을 제시하여 그 공간이 주는 상징을 독자가 알아차리게 한다. 예컨대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베이커리는 마법사와 파랑새가 있는 환상 공간이다. 동화 『파랑새』에서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는 행복, 희망, 위로, 치유이다. 파랑새가 있는 곳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온 현실 세계였다. 주인공 ‘나’는 의붓동생의 성추행범으로 계모에게 오해받고 도망쳐 나온다. 친부조차도 ‘나가 받은 오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다. 독자는 이런 ‘나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동화 『파랑새』의 결말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주로 오세요』는 ‘방주’라는 환상적 공간을 제시한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상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공간의 이름이 내포한 의미를 알게 될 때, 깊이 있는 독해가 가능하다.

6) 김명순, 「광폭한 현실, 미약한 환상-구병모 청소년소설 『위저드 베이커리』(창비, 2009) 자세히 읽기」

7) 윤경희, 「쿠라의 영향 아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길』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15. 275쪽 참조. “구병모 소설의 많은 장면들은 특정 분야에 숙달된 기술자만 제대로 구사할 법한 언어로 짜여 있다. 기술자의 글쓰기에는 일반인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문 언어들, 질료가 물체로 변형되는 과정의 능란한 서술, 그런 변형에 개입하는 주체적인 행위의 동사들, 마치 클로즈업이나 스톱모션처럼, 업자만 알아보고 행할 수 있는 미소한 디테일과 제스처의 언어적 확장과 상감, 그리고 무엇보다 완결된 사물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이 사용자에게 끼칠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평했다.

또 구병모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는 환상 공간에 구체성을 부여하여, 그 공간이 현실적 공간처럼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구병모의 작품 분석은 ‘환상 공간’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채원은 “구병모는 등단작인 『위저드 베이커리』(2009)부터 시작해서 줄곧 신화와 동화를 소설에 가져와서 판타지적인 서사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하지만 그 판타지적인 세계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으로 향한다.”⁸⁾고 해석했다. 또 고영진은 구병모가 “재난이 일상이면서 동시에 계급화 된 세상 속에서 피난마저도 봉쇄당한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을 환상과 동화라는 전략적 수사로 구현”한다고 해석하며, 그의 단편소설을 분석하였다. 그는 구병모의 단편소설이 서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과 그 전략적인 방법론을 분석하였는데, 방법론으로 “소설의 배경을 일차적인 공간에서 다차원으로 확장하고, 그 공간 요소에 부수되는 삶의 구체적인 새로운 결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⁹⁾라고 제시한다. 또 다른 논문에서 고영진은 구병모가 “환상소설의 서사구조에 관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거듭하는 작가”이며, “『위저드 베이커리』는 제시된 두 결론 모두가 나름의 설득력으로 독자에게 서사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김선미는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성장서사를 ‘타자와의 만남과 연대의 성장서사’, ‘여행을 통한 자아 확장의 성장서사’, ‘환상을 통한 가치 획득의 성장서사’로 유형화하였다.¹⁰⁾ 성영미는 청소년소설에서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에 따라 성장을 3가지 양상으로 나누었는데,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모두 그려내거나,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만 그리면서 처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환상적 세계를 통로 삼아 성장으로 이루는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중 『위저드 베이커리』는 환상세계를 통로 삼아 성장을 이루는 양상으로 분류하였다.¹¹⁾

위 연구들은 환상 공간과 성장,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 등을 다룬다는 점에

8) 이채원,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하여 현실에 개입하는 소설의 확장된 의미」-구병모의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텍스트로 한 발표와 토론 수업을 바탕으로-, 『사고와 표현』 제16집 3호, 2023, 282쪽.

9) 고영진,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구병모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21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6, 154쪽.

10) 김선미, 「청소년 성장서사 유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1) 성영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서 본 논문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등단작인 『위저드 베이커리』와 단편소설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작품 중 『위저드 베이커리』와 환상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방주로 오세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작품을 통해 구별모가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소설의 개념과 성장의 의미

2000년대 초반 본격적인 청소년 문학이 싹트던 시절에는 주로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왕따인 주인공을 그린 학원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소재가 등장하였다. 자살, 미혼모 등 더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고, 환상적인 공간이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작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주 독자인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소설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성장’이라는 주제는 작품 안에 녹아있다.

오세란은 청소년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현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의 수용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가 과거에는 일반인과 아동의 경계에 있는 존재였다면, 요즘에는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한 문화의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¹²⁾ 그리하여 그들을 위한 문학, 즉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마스터 플롯으로 삼게 된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소설’과 ‘성장소설’을 혼용하기도 한다.

‘성장소설’은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자아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신적 위기나 절망의 과정을 극복하고 성숙해 가는 사건을 그린 소설로 정의된다. 이러한 유형의 서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교양소설, 교육소설, 형성소설 등 대략 20여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된다.¹³⁾ 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

12)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2.

13) 오세란, 『청소년 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15쪽.

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지칭한다.¹⁴⁾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소설’¹⁵⁾과 ‘성장소설’을 동일시할 수 없다. ‘성장’은 ‘청소년소설’의 전유물이 아니며, 청소년소설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소설의 주인공이 모두 ‘성장’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청소년소설에서 ‘성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주인공들은 자아를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탐색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는다. 자신의 가치관, 꿈,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또 소설 속 주인공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한다.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가치관과 처한 환경과의 충돌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인공은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이룬다. 특히 청소년에게 친구, 가족, 교사 등 다양한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자기 수용과 자기 개선은 성숙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감정 기복이 크고 복잡한 시기이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변화를 실감나게 표현하며,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율성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소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받았다.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등장이 그것이다. 예컨대 2008년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완득이』(김려령, 창비, 2008)는 청소년 문학의 태동을 가져왔고,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이며, 영화로도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은 『완득이』에 등장하는 조력자, 즉 김선생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완득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평가한다.

14)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14쪽.

15) ‘성장소설’과 ‘청소년소설’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소설’로 지칭한다.

또 구자황은 “현대 청소년을 그리는 청소년소설을 ‘성장통 없는 시대의 성장 소설’로 표현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장통을 느끼기에는 꿈꿀 시간 자체가 모자라고, 꿈이란 본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¹⁶⁾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엄혹한 현실과 조우한다. 부모의 이혼, 학교 폭력, 성적 정체성, 죽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장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다. 구자황이 지칭하는 경쟁에 내몰려 꿈꿀 시간도 부족한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의 아이들도 성장통을 앓는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의 두 주인공은 엄혹한 현실을 마주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성장통을 겪는다.

청소년소설에서 ‘성장’은 주요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소설에서 성장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나치게 도식적인 측면이 있었다. 도식적이고 뻔한 전개는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청소년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심리 상태도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반감을 준다. 복잡한 그들의 심리상태를 낱것으로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청소년은 공감한다. 소설 속 청소년들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 구병모의 두 작품은 주인공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의 소임은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청소년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병모의 두 작품은 청소년소설의 소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상 공간의 도입과 성장

소설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사회

16) 구자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교육 정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학회, 2012, 197쪽.

적·문화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며,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장치로도 쓰인다. 따라서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공간을 설정하고 묘사한다. 이 경우 독자는 공간을 쉽게 상상할 수 있고,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꽂하고 모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독자를 신비나 꿈의 세계로 빠트려 놓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단서들을 모호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장소 규정 같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콩트로 받아들이 수박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독자가 쉽사리 공간을 상상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세심하게 처리할 경우 그것은 소설가가 빈틈없이 조직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소설가의 「공간적 센스」가 발휘됨으로써 작가가 화가와 가까운 감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다.¹⁷⁾ 또한 소설 속에서 공간은 대칭, 대조, 친화력, 긴장, 혹은 혐오 따위의 관계를 맺고¹⁸⁾ 있다.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로 오세요』의 배경은 환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대칭적 구조를 가진다. 각각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그 안에서 주인공인 청소년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저드 베이커리」 - 위로와 치유의 공간

『위저드 베이커리』는 현실 세계와 판타지 세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소설 속 주요 공간은 현실 세계인 집과 판타지 세계인 위저드 베이커리의 오븐 속이다. 두 공간은 ‘나’에게 주는 의미의 측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나’에게 집이 ‘결핍’이 있는 현실적 공간이었다면, 판타지 세계인 베이커리는 ‘위로’과 ‘치유’의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집은 평온한 안식처이다.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생존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소설에서 집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나’는 말을 더듬는 열여섯 살 소년이다. ‘나’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자살하

17) 김화영 編譯, 롤랑 부르뇌프/레이 일레 共著 『現代小說論』, 문학사상사, 1992, 150쪽.

18) 위의 책, 같은 쪽.

였다. 자살하기 전, 어머니는 ‘나’를 청량리역에서 버린다. ‘나’는 일주일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석 달 뒤에 어머니는 자살했다. 결국 ‘나’는 청량리역에서 한 번, 어머니의 자살을 통해 어머니에게 두 번, 아버지에 의해 세 번 버려졌다. 공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사람들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량리에 대한 기억은 어린 ‘나’가 버림받은 공간이란 것이다. 그 기억은 ‘나’가 관계를 형성할 때마다 두려움이나 회피 등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엄마가 사라졌으나 내 몸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엄마가 없었음에도 나의 현실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 엄마의 껍데기와 사는 거나, 엄마가 없는 거나 뭐가 다른데. (111쪽)¹⁹⁾

아버지가 배선생과 재혼하기 전까지 집은 ‘나’에게 보호처의 역할을 한다. 이미 부모의 방치로, 보호자가 없는 그저 물리적인 장소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나’에게 ‘집’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기 전, 어린 ‘나’에게 집에 대한 기억의 작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이 주는 안정감은 그때까지였다. 아버지가 배 선생과 재혼하고 의붓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나’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곳이며 결핍의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서 ‘나’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공간의 기능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결정된다. 배 선생은 나와는 관계보다, ‘집’을 자신의 영역으로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나’를 배척함으로써 ‘나’에게 집은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축소된다.

집안에서 나의 좁은 입지를 느끼게 된 것은, 언젠가 배 선생이 내가 집에서 입을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중략>

“이 집은 너만 사는 데가 아니라 내 공간이기도 해. 지킬 예의는 지키란 말 이야.”

공간 확보에 대한 배 선생의 욕망은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37쪽)

19)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이후 인용한 본문은 각주를 달지 않고, ()안에 쪽으로 표시함.

집 안에서 배 선생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나’의 영역은 점점 좁혀진다. 급기야 ‘나’의 영역은 내 방으로 한정된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소외를 의미한다. 공간의 제한은 머무르는 시간적 제약을 가져온다. ‘나’에게 집은 더 이상 보호처가 아니다. 적어도 혈연으로 연결된, 마땅히 보호자여야 할 친부조차 ‘나’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결국 나는 소외를 넘어 배선생의 적극적 배척과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 집안에서 존재를 부정당한다. 존재의 부정은 결국 ‘나’를 말더듬이로 만든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말더듬증은 담임선생에게 폭행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곳은 휴대 전화로 구타 동영상을 촬영할 아이들조차 없는, 단 열두 명의 교사만이 사용하는 제3교무실이었다. (15쪽) 그 뒤로 ‘나’는 졸업할 때까지, 어느 과목 선생도 발표시키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나’에게는 학교조차 철저히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곳이다. 가정에서 관계의 고립이 사회, 즉 학교에서의 고립으로 확장된 것이다. 담임에게 폭행당한 ‘나’의 반응은 억울함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저 담임을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끼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지지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기 어렵다. 집과 학교에서 소외된 ‘나’는 현실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나’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화 과정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힘들게 지내던 ‘나’는 의붓어동생인 무희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다. 새어머니가 무희에게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종용하고, 결국 무희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 배 선생은 이성을 잃고 나를 때렸지만, ‘나’는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 옆에 있던 아버지는 “나를 감쌀 만큼 자애와 이성에 가득 차 있지도 않았다. 전체적으로 모호함이 넘쳐 있었다.”(51쪽) 그 순간 ‘나’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 친부의 보호조차 담보되지 않은 곳, 결국 ‘나’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달리면서 생각한다. 갈 데가 없어. 피시방 같은 데서 밤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터진 일어서서 백 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들고 나왔다. 말할 일이 없으니 쓸 일도 거의 없는 휴대전화는 책상 옆 가방 속에 둔 채로 다. <중략> 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 공간적 한계를 깨달았을 때 떠오른 곳이 여기였다. (19쪽)

나는 달리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느끼고 “공간적 한계”를 깨닫는

다. 현실 세계는 ‘나’에게 폭력적인 곳이며, 관계를 배척당하는 곳이며, 존재를 부정당하는 곳이다. 그때 새로운 공간인 제과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 제과점을 보는 순간 나는 “도망갈 곳”이 있다고 안도한다. 그런데 그곳은 평범한 빵집이 아닌,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마법사의 베이커리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환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환상 공간의 도입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위해 필연적이다.

원룸형의 방 자체는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고 이계(異界)의 느낌도 나지 않았다. 지극히 현실적인, 〈중략〉 복잡한 실험 기구들, 플라스틱과 비커마대에
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고운 색 액체들이 〈후략〉. (67쪽)

그런데 구병모는 환상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침대, 엔틱디자인의 데스크톱 컴퓨터, 월넛색의 붙박이 책상, 마녀의 자궁에 비유되는 솥, 라틴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제목이 달린 양장본 고서 등 환상 공간의 이미지를 세세하게 묘사한다. 이를 통해, 현재 ‘나’가 있는 환상 공간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또 마법사의 오븐 속에 있는 원룸형의 방은 “환상적”이지 않았고, “현실적”이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환상 공간이 현실에서 유리된 공간이 아니고, 현실에 기반을 둔 공간임을 밝힌다. 하지만 환상 공간은 환상성에 더 비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상 공간에는 낮에는 사람, 밤에는 새가 되는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 특별한 존재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만들며 그 공간의 기능을 부여한다. ‘나’는 그공간에서 뗀어지는 관계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 그리고 위로와 치유를 통해 ‘나’는 성장한다.

“울어, 울면 좀 나아질 거다.” (75쪽)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나’가 뛰어 들어간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위로를 받는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의 방임과 새어머니의 학대를 받았던 ‘나’는 환상 공간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지지받는다. 즉 환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구원과 도피의 환상 공간이, ‘나’에게 버려짐²⁰⁾을 상징하

20) 엄마가 나를 청량리에 버릴 때, 왼쪽 주머니에 동전 몇 개와 휴대용 휴지 팩,

는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다. 이런 장치를 통해 구멍모식 성장 문법이 드러난다. 위로와 치유를 받는 곳, 성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즉 내가 처한 극한의 현실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 내일 아침 먹고, 집으로 가.”

지속적인 피난처란 없다. <중략>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뭐지, 단지 닥쳐올 고통을 조금 지연시킨 것뿐? (75쪽)

“그래도 안 돼.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부딪칠 것. 운 좋으면 해결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숨겨준 건 그래도 단골손님이었기 때문이지 판 뜻은 없어. 지금 숨으면 앞으로 다른 일이 생겨도 몸을 피하려고만 할걸.” (77쪽)

그리고 환상 공간은 “지속적인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또다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실을 직면하기 전, ‘나’는 베이커리에서 여러 사연을 가진 고객들을 만난다. 그들은 현실에서 마주한 관계의 갈등을 마법의 빵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이 택한 방법이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은 결국, 마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중략> 그로 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너한테까지 미칠 테니까.” (134쪽)

결국 ‘나’는 워저드 베이커리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 세계에서 또 다른 진실과 직면하게 된다. 그 진실은 자신의 누명을 벗게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의붓여동생 성추행한 가해자가 아버지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돌아온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더 지독한 현실을 마주했다. 아버지의 성추행을 목격한 배선생은 아버

오른쪽 주머니에 대보름빵 한 개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비상식량과 휴지는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100~102쪽.)

지를 향해 미친 듯 소리치다가 그 화살을 또 ‘나’에게 돌린다. ‘나’는 이 순간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나올 때 가져온 ‘타임 리와인더’를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작가는 Y와 N의 경우로, 각각의 결말을 제시하였다. Y의 경우는 시간을 되돌렸다. 나는 아버지와 배선생의 결혼을 반대했다. 아버지는 배선생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아 성추행 사건은 운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결론은 결국 시간을 되돌리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N의 경우는 ‘타임 리와인더’를 먹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아버지는 여아 성추행범으로 회사에서 면직되었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고, 배선생은 무희와 함께 떠났고, ‘나’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사 오기 전날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한다. 그 안에 부서진 쿠키가 있었다. 부서진 쿠키 속에 들어있던 종이 초콜릿은 시간과 공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점장이 ‘나’에게 시·공간을 되돌릴 기회를 준 것이다. 두 가지 결론에서 ‘나’가 ‘타임 리와인더’를 선택한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선택하더라도 현실의 상황이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배선생이 주문한 나를 꼭 빼닮은 ‘부두인형’을 배선생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행위는, ‘나’가 그 상황을 이겨 낼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국 마법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서 나는 내 곁에 있었거나 내게 걸려있던 마법이 모두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타임 리와인더가 부서졌을 때부터 마법은 모두 사라져버렸는데도. (240쪽)

물론 빵이란 내게 있어 진절머리 나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초강력 아이템이긴 하다. <중략> 그의 빵에는, 잘못 사용하면 조금은 위험한 향신료일지 몰라도, 과거와 현재 대신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112쪽)

환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공간을 함의한다. 타임 리와인더를 통해 시간적 공간을 재조직할 수 있는 마법이 가능한 곳이다. Y의 경우에서 ‘나’는 시간을 되돌렸으나, N의 경우에서는 쿠키가 부서지는 바람에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든 ‘나’는 환상 공간을 통해 성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공간은 관계로 규정된다. 현실 세계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배척하는 배선생, 나에게 무관심하고 이중적인 성격의 아버지, 나를 범죄자로 지목한 무희, 그리고 손자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할머니,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하는 반 친구들과 폭력적인 담임이 있는 곳이다. 나와 관계한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나'가 현실 속에 존재하기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에 반해 환상 공간은 파랑새가 있는 공간이다. 구병모는 '파랑새'라는 친숙한 동화를 차용하여,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불행했던 '나'가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곧 성장이다. 그러므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인 '나'를 지지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마법사와 파랑새가 있는 환상 공간의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환상 공간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나'는 현실로 돌아올 힘을 얻는다. 결국 현실극복에 대한 해법은 마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이 곧 성장이다.

2) 「방주로 오세요」의 - 불평등과 위계의 공간

『방주로 오세요』는 기후 변화와 재난으로 인해 인류가 처한 극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상의 세계, 즉 미래 사회²¹⁾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다. 소설 속 공간은 다양한 상징적, 서사적 역할을 하며,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 소설 속 공간은 지상과 방주로 나뉜다. 그러나 대부분 '방주'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방주'의 기원은 기독교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성경에서 창조자가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가장 선한 인물인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한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동물을 방주에 태워 구원한다. 즉 방주는 '인

21) 본 논문자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현재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세계이므로 "미래 사회"로 해석하였으며, 작가 구병모는 작가의 말에서 "이 이야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가정법이다. 소설에 어떠한 연도도 기입하지 않은 건 이 때문이며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구병모, 「후기」, 『방주로 오세요』, 문학과 지성사, 2012년.

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공간이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했듯이, 미래 사회에서도 방주시에 거주하게 된 인간은 지상에 남은 인간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30년에 걸친 방주시 건설 프로젝트는 〈중략〉 주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벌을 내리셨지만, 우리는 발전된 기술력을 응집하여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벨탑처럼 어리석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리신 시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 만들어주신 땅에 온전히 주의 뜻에 맞는 소박한 터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²²⁾

미래 사회에서 ‘방주시’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건설한 거대한 도시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공간이, 새로운 도시로 탄생했다. 방주는 외부의 혼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방주시에 사는 이들에게 이곳은 구원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평등과 위계의 공간이 된다.

주인공인 마노는 방주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인물이다. 마노는 ‘지상의 아이들’로 표현되는 아이 중 한 명이다. ‘지상의 아이들’은 방주라는 공간에 가기 위해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다. 지상의 아이들이 방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숨아내어지고”, “체에 걸러지고 남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방주시의 고등학교는 지상의 아이들에게 입학 정원의 십 퍼센트를 할당한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한다. 지상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최첨단의 도시가 제공하는 양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이곳에서 마노를 포함한 지상의 아이들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위계에서 낙오된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 사람이예요.”

아마도 그 말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입장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떠올리기 위해 사이를 두었던 모양이다.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노의 눈에 그 애는 아까보다도 고귀해 보였고 생각할 수 있는

22) 구병모, 『방주로 오세요』, 문학과 지성사, 2021, 18쪽. 이후 인용한 본문은 각주를 달지 않고, ()안에 쪽으로 표시함.

온갖 이상적인 요소들의 집합체 같이 보였다. 여기 사람이예요, 라니 (32쪽)

‘여기 사람’은 이란 두 어절은 ‘신분과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이 가지는 가치는 ‘고귀’, ‘이상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여기’라는 공간은 거기에 속한 소속원들에게 신분을 부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물리적 공간인 ‘여기’에 있으나, 그곳의 위계에 속하지 못한 존재들이 있다. ‘여기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두 어절은 ‘지상의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방주시’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그들이 만든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치는 관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만든 네트워크 안에는 ‘여기 사람’만 있을 뿐, ‘지상의 아이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상의 아이들이라니, 토할 거 같아.”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처럼 다짜고짜 조소가 튀어나오자 마노는 흠칫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

“진짜 지상은 여기. 너희가 있던 곳은 그냥 땅바닥.” (59쪽)

‘방주시’라는 상징적 공간은 불평등과 위계의 공간이다. 학생회장인 일락의 말을 통해 이 공간에서 지상의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차별과 모욕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서 분석한 『위저드 베이커리』의 경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을 주인공이 극복하는 방법으로 환상 공간을 도입하였다면, 『방주로 오세요』는 가상의 공간이 오히려 더 폭력적이다. 현실, 즉 지상에서 탈출하여 더 나은 환경으로 자존심도 상해가며 입성한 곳이, 오히려 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은 도피와 위로의 공간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을 드러낸다. 방주시의 모든 건물과 길 등은 성경에서 딴 이름이다. 공간의 이름은 그 공간의 기능과 상징을 함의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네트워크는 공간적인 배치로 인해 더욱 견고해진다.

이곳에 처음 올라온 날, 지상에서 온 합격생들은 ‘데칼로그’ 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12층짜리 기숙사 건물에 들어섰다. <중략> 단체 규율이 생명인 기숙사라는 장소를 생각해 볼 때 더없이 어울리는 속소 이름이었다. (43쪽)

데칼로그는 성경의 십계명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방주로 오세요』의 공간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기숙사 이름의 뜻인 십계명은 인간이 신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십계명을 어기면 신에게 노여움을 사게 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첫 계명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에게 내린 정언 명령이다. 즉 지상의 아이들에게 기숙사가 주는 의미는 그들의 신분에 대한 재확인이며, 그 신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정언 명령이다. 그런데 정언 명령에 대한 지상 아이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지상의 아이들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프로네시스’라는 단체를 결성한다. 그 단체의 부장은 시온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시온은 아이러니하게 종교적 함의로 이루어진 방주시를 폭파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이다. 방주고의 학생회장 나일락은 신성모독적인 이름이라고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시온이란 이름의 진짜 뜻은 종교적인 게 아닌, 베풀 시(施), 어질 온(溫)의 시온이다.

공간은 타인과의 관계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마노는 방주고등학교에서 여러 관계를 맺는다. 대표적인 관계는 학생회장 나일락과 마노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철저하게 위계에 의한 관계이다. 나일락은 방주고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선생들조차 모두 땅바닥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나일락의 행동을 방관하였다. 일락은 프로네시스를 감시하기 위해 학생회의 전용 프락치로 마노를 선택했다. 방법은 쌍둥이 여동생 루비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것이었다. 마노는 동생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수락한다. 일락은 마노가 협조하면 편안한 학교생활과 대학 추천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마노에게는 일락에게 협조하는 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로 느껴진다. 이 계약은 마노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작품 속에서 또 다른 관계와 갈등을 겪으면서 서사의 주요한 축이 된다. 또한 이 관계 속에서 마노는 내적 고민을 겪게 되고, 마노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노의 내적 성장에 중요한 관계가 된다. 또 다른 관계는 시온과의 관계이다. 시온은 프로네시스의 부장이며, 기숙사장이다. 시온은 밝은 양지를 닮은 모습이며,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다. 마노는 프로네시스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중

칩자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폐허에서 비정상적인 삶의 터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은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지도층하고 고위층 인사들이 그 운명을 공유하는 대신 이 도시를 만든 거야. 폐허를 조금이라도 빨리 복구해서 더 많은 사람이 무사히 살아가는 데 투입했어야 할 예산, 그 이상을 여기에 쏟아부어 버렸지. 자기들만 살아갈 땅에다가……”

“그런데 높은 분들만 살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자기들 삶을, 그러니까 도시 시스템을 유지시켜줄 따까리들이 필요해졌어.”

프로네시스의 시온과 안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방주시에 가지는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포르네시스를 결성한 목적에 맞닿아 있다.

도저히 일반적인 학생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들이 아니라 마노는 두려움이나 불쾌감 이전에 어리둥절했다. 대화 소재만으로는 웬지 조직 사회 이면에서 대규모 계약과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데, 〈중략〉 자신의 주관보다는 꼴통이나 진보로 이분되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고스란히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믿는 말들. (65~66쪽)

마노는 과거 나일락의 프락치 제안에서 느꼈던 이질감은 프로네시스의 가입과 프락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노는 시온이나 달리처럼 방주시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는 인물이다. 마노는 방주시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즉 손수건을 건넬던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 인물이다. 그리고 동생 루비의 안전 때문에 나일락의 프락치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즉 마노는 공동체의 목표보다는 자신이 가진 신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왜, 아무리 보잘것없는 수준의 권리라든 자신들이 이미 손에 넣은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해가면서 이런 일을 꾸미는지, 〈중략〉 방주고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며 노예 예비군 양성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파괴한 뒤에는? (122쪽)

마노와 시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서로 상충한다. 마노

는 방주시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주시를 폭파하겠다는 프로네시스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마노의 내적 갈등은 시온과 외적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노는 나일락의 프락치였기 때문에, 시온과 프로네시스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했다. 이 내적 갈등은 마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학교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제가 할 일은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불씨를 끄는 거고요. <중략> 멀리 내다봤을 때 누나의 안녕을 지키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188~189쪽)

마노는 자신의 선택을 학교를 위해, 누나(시나이 광장의 손수건의 주인공이라 오해한 다나)의 안녕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행동 때문에, 방주시를 폭파하려는 프로네시스의 목적은 실패하고, 시온은 스스로 난간에서 떨어져 식물인간이 되었다. 마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깨달음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시나이 광장의 손수건을 준 진짜 주인공인 달리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마노는 시온이 깨어날 때까지 병실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본다. 그 과정을 통해 마노는 성장한다. 외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 마노는 시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프로네시스의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 대항해서 사회가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을 뒤쫓는 청소년 인물의 모습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양가적 기대가 드러난다. 사회적인 의미의 성장을 이루어 순조롭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불합리한 사회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대항할 줄 아는 용기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²³⁾

프로네시스의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 대항하거나 외적 갈등을

23) 정미진·이영석,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 제 37호, 2018, 285쪽.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성인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양상을 띤다.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성장이 그것이다. 마노는 시온의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즉 시온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억압적인 사회에 대항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깨달음은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방주로 오세요』의 성장 서사는 방주라는 새로운 공간, 환상 공간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장치와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환상 공간의 도입을 통해, 주인공 마노와 그 주변 인물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마노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불평등과 위계는 그 자체로 잘못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온을 비롯한 지상의 아이들은 방주시의 불합리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

4. 결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 이 말이 유행처럼 사용된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한 말이며 긍정적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나 성장은 칭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인식과 피드백을 통해서도 성숙한 주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성장’은 칭찬이나 보호만으로는 동력이 부족하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접점이 조건 없는 보호와 위로를 하지 않은 까닭이다. 또 『방주로 오세요』에서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른들의 보호가 없었다.

지금까지 청소년소설은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받아 왔다. 그러나 구병모의 소설은 조력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조력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공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소설의 성장 서사는 대체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주인공이 가족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시쳇말로 ‘문제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해 주는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새로운 시련을 만난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기본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선부른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을 다루기 위해, 문제적 가정에 노출된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청소년 소설의 주인공들이 가정의 훼손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장을 이룬다는 동일한 결론이 오히려 그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중략> 청소년소설이 특별한 어떤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형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가족의 훼손이라는 토포스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⁴⁾

구병모도 청소년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중 가정의 해체로 인한 문제와 학교 폭력의 문제, 또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계모의 학대, 의붓동생과의 소통의 단절, 아버지의 방임 등 해체된 가정의 모습과 베이커리 고객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소통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방주로 오세요』는 불평등하고 모순적인 사회가 청소년의 공간인 방주고등학교에 그대로 투영한다.

‘성장’이라는 주제를 무시할 수 없는 청소년소설의 한계이다. 또 극적 긴장감을 가지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서 주인공의 성격이나 환경을 과장되게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병모식 성장 서사는 다른 작품과 차이점이 있다.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평범한 아이로 그렸다는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나’는 열 살부터 현재의 나이인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계모로부터 교묘하게 학대를 당한다. 그로 인해 삼 년 전부터 말더듬이 증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인해 담임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일을 당함에도, ‘나’는 소극적인 아이로 그려질 뿐 반항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이다. 물론 극단적 상황을 목격한 아이를 평범한 아이처럼 그렸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분노의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 문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작품 속 ‘나’처럼 참아낼 뿐이다.

24) 앞의 책, 272쪽.

『방주로 오세요』도 마찬가지이다. 주인공 ‘마노’는 첫눈에 반한 소녀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방주 학교에 입학한 평범한 남학생이다.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기회주의적인 캐릭터이다. 그것은 나일락이 마노를 프락치로 선택한 이유다. 모든 학생들 중 조건이 딱 중간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총계를 냈다고 했지. 너는 그중에 딱 가운데야. 구십칠부터 육십육점까지 있다면 팔십일 점짜리가 너라고. 너무 잘나지도 않고 너무 추레하지도 않은 중간 규격의 눈에 띄지 않는 인간, 맹물만큼 평범한 인간이 프락치 노릇을 하는 데에는 제격이란 말이다.”²⁵⁾

나일락은 마노에게 프락치 제안을 한다. 쌍둥이 동생인 루비를 인질로 잡고, 마노는 폭행을 당한다. 마노는 일락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루비의 안전을 위해 그 제안을 수락한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은 ‘성장’에 쉬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력자의 역할이 기존의 청소년소설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조력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통과의례는 주인공의 몫으로 남겨둬으로써 주체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63쪽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그리고 구병모는 그 선택을 주인공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은 현실에서 도피할 수도 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처가 나면 난 대로, 돌아갈 곳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이가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단지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실은 더 많을 터다. 그러다 보니 귀향이나 회복, 치유와 화해를 넘어 미래에의 전망에 이르는 성장의 문법을 무의식적으로 배제했다.²⁶⁾

25) 구병모, 『방주로 오세요』, (주)문학과 지성사, 2012, 67쪽.

26) 구병모, 『후기』,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251쪽.

위에서 인용한 작가의 말처럼, 구병모의 소설에서는 성장의 해법을 ‘환상 공간’을 통해 은유적으로 제시하였다. 구병모가 제시한 ‘환상 공간’인 ‘위저드 베이커리’와 ‘방주’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만, 완벽한 공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공간이 필요한 까닭은 그 공간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 힘을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장르가 ‘성장소설’이며, 그 힘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미래가 가장 불안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다수 아이는 두 소설 속 주인공처럼 걸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자아를 탐색한다. 또 외적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시험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과 용기 등이 발휘되기도 한다. 때로는 좌절과 분노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온다. 또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독자인 청소년들은 소설 속 주인공의 행동을 대리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소설과 성장소설을 개념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나, 청소년소설의 가장 주요한 주제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작품은 청소년소설이면서,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구병모의 텍스트에 나타난 환상 공간의 의미와 인물의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청소년소설의 중요한 주제인 ‘성장’을 계몽적이고 교훈적으로 그리지 않기 위해서 제시한 ‘환상 공간’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구병모식 성장의 문법을 살펴보았다. 구병모는 미래에의 전망에 이르는 성장의 문법을 무의식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결과 중심적인 성장보다, 상처 난 대로 틀어진 대로 견디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택했다. 문학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 독자가 스스로 질문하며 고민하게 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쇼펜하우어의 질문에 대해, 구병모는 소설을 통해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즉 완전한 행복도 없다.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 ‘성장’에 대한 구병모식 아포리즘은 ‘성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기본도서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_____, 『방주로 오세요』, 문학과지성사, 2012.

참고

- 오세란, 『청소년 문학의 정체성을 묻다』, 창비, 2015, 15쪽.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14쪽.
김화영, 編譯, 롤랑 부르뇌프/레이 월레 共著 『現代小說論』, 문학사상사, 1992, 150쪽.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주연,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9, 2쪽.
김선미, 「청소년소설의 성장서사 유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4쪽.
성영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윤경희, 「쿠라의 영향 아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길』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15, 275쪽.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3), 2008, 12, 279-300쪽.
김학찬, 「청소년 소설 칠택 양상 연구-청소년 소설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33쪽.
구지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교육 정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화회, 2012, 197쪽
김명순, 「광폭한 현실, 미약한 환상-구병모 청소년소설 『위저드 베이커리』(창비, 2009) 자세히 읽기」
이채원,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하여 현실에 개입하는 소설의 확장된 의미」-구

구병모 소설의 환상 공간과 새로운 성장

병모의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텍스트로 한 발표와 토론 수업을 바탕으로-, 『사고와 표현』 제16집 3호, 2023, 282쪽.

고영진,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구병모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21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6, 154쪽.

정미진·이영석,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 제37호, 2018, 272쪽.

Abstract

Fantasy Space and New Growth in Koo Byung-mo's Novels - Focusing on 'Wizard Bakery' and 'Come to the Ark'

Kim, SoonJoung(Wonkwang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theme of “growth,” a universal value in young adult literature, manifests in the fantasy spaces of Gu Byeong-mo’s *The Wizard Bakery* and *Come to the Ark*, and to identify the new framework of growth that Gu proposes. Since the mid-to-late 2000s, Gu Byeong-mo has been a prominent figure in young adult literatur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its popularization. Her works are praised for their integration of mythology and fairy tales, as well as their meticulously structured narratives grounded in professional expertise.

Both *The Wizard Bakery* and *Come to the Ark*, two of Gu’s most notable works, share a common theme as growth narratives set in fantasy worlds. The fantasy spaces Gu creates serve as realms of comfort and healing but also as spaces reflecting harsher inequalities and hierarchies than those of the real world. These spaces are neither disconnected from reality nor portrayed as perfect utopias.

While characters in fantasy literature often possess extraordinary or supernatural abilities, Gu breaks away from this convention by depicting ordinary adolescent protagonists. Even the mentors or helpers they encounter within these fantasy worlds are imperfect. Furthermore, Gu reinterprets the concept of growth. Traditional growth narratives tend to focus on the outcome, whereas Gu shifts the emphasis to the process. She asserts that experiencing failure is a crucial part of “growth” and interprets it as a “consequence of choice,” placing “individual agency”

at the heart of the growth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fantasy spaces and the protagonists' growth in Gu Byeong-mo's novels. It examines how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growth narratives in young adult literature is redefined through the use of "fantasy spaces." Additionally, the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Come to the Ark*, which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alongside *The Wizard Bakery*, thereby identify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fantasy spaces in both texts.

▣ Keywords: Koo Byung-mo, youth novel, fantasy space, growth grammar, growth narrative, healing, comfort, inequality, hierarchy

접수일자: 2024. 11. 29 심사일자: 2024. 12. 08 게재결정: 2024. 12. 20